

김민재, 발롱도르 22위 ... 수비수 최고 순위

2023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명 가운데 수비수는 단 3명뿐이었다. 여기에 한국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수비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날 전 세계 100명 기자단 투표로 매겨진 발롱도르 순위에서 22위를 차지했다. 함께 후보에 오른 후벵 디아스(30위), 요슈코 그바르디올(25위·이상 맨체스터 시티) 등 유럽 톱클래스 수비수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이탈리아)에 입단, 유럽 빅리그 입성 꿈을 이뤘다. 단숨에 주전 센터백을 꿰찬 김



▲ 2023 발롱도르 랭킹 22위를 차지한 김민재. 사진=발롱도르 SNS 캡처

민재는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A 정상에 오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김민재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지난 시즌 세리에A 공식 선정 최우수 수비수에 등극하는 영광도 안았다.

이 같은 활약을 바탕으로 수많은 빅클럽의 러브콜을 받는 거물이 된 김민재는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다.

역대 한국 선수 가운데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건 김민재가 5번째다. 앞서 설기현(2002년 안드레흐트), 박지성(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손흥민(2019·2022년 토트넘)이 후보에 포함됐다. 가장 높은 순위는 2021~2022시즌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거머쥔 손흥민의 11위다.

올림픽 준비 황선홍호, 프랑스서 전지 훈련 및 평가전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남자 올림픽 대표팀(22세 이하)이 11월 A매치 기간에 프랑스에서 전지 훈련 및 현지 평가전을 갖는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에서 전지 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17일 프랑스 르아브르에서 현지 프로팀과 연습경기를 가진 뒤, 20일 같은 장소에서 프랑스 21세 이하(U-21) 축구대표팀과 평가전을 갖는다.

대한축구협회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황선홍 감독이 본격적으로 2024년 파리 올림픽 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11월 A매치 기간에 해외 훈련을



▲ 지난 9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태극기를 펼쳐두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획하면서 프랑스에서의 훈련과 현지 평가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

프랑스 U-21 축구대표팀은 현재 만 21세(2002년생) 이하 선수들로 구성됐다. 유럽은 11월 A매치 기간에 2025년 유럽 축구연맹(UEFA) U-21 축구 선수권 대회 예선을 치르지만, 프랑스 U-21 축구대표팀은 17일 오스트리아 원정 경기 후에 정된 예선 일정이 없어 평가전이 성사될 수 있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을 지휘한 뒤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황선홍 감독은 이번 유럽 전지훈련에 해외에서 활동중인 연령대 해외파 선수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비, 은퇴엔 “굳이?”, 복귀엔 “아직”



▲ 잭시오 파더&선 2023 팀 클래식'에 참가한 박인비(왼쪽)가 남편 남기협 씨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던롭스포츠

팔을 낳은 뒤 골프 선수 활동을 잠시 접은 '골프여제' 박인비가 은퇴 계획에는 선을 그었지만 당장 투어에 복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인비는 이날 경기도 안성의 안성 베네스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던롭스포츠코리아 주최 골프대회인 '잭시오 파더&선 2023 팀 클래식'에 잭시오 엠베서더 자격으로 참가해 "골프 선수로서 굳이 은퇴한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를 그만둔다고 말했다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나는 미국과 한국 양쪽 투어에 모두 영구 시드를 가지고 있어서 여유 있게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박인비는 그러나 "내년에 투어에 복귀하기는 좀 어려울 듯하다."며 당분간은 선수로 필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비는 아직은 운동과 연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데다 내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뽑는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는 등 투어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돌보느라 한창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박인비는 "골프와 육아 중에 어느 쪽이 어렵냐"는 질문에 "육아가 더 쉽고 재미있다"고 대답했다.

박인비는 "물론 남편을 비롯해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수월한 건 사실"이라며 "딸이 너무 예쁘다. 딸도 골프 선수를 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